

35년 만에 생부 찾고 이젠 런웨이드도 누빈다, 인생 터닝슛

정영재 스포츠전문기자



국가대표→약물 적발, 비운의 축구인
DNA 검사로 만난 아버지는 미 목사
작년 아들도 얻어 "모든 게 꿈만 같아"
복귀 후 골 넣고 90도 사죄 세리머니
다문화 아이들 돕고 기부 활동도
비·빅뱅 등 이어 '슬링스톤' 모델로
"다른 피부색, 족쇄 아닌 날개 될 것"

사랑은 사랑을 낳고, 신묘한 인연은 더 짙고 따스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그라운드의 풍운아' 강수일(36·안산 그리너스)이 35년 만에 기적처럼 미국인 아버지를 만난 게 2021년 여름이었다. 그리고 1년 뒤 강수일에게 아들이 생겼다.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강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리고 핏줄에 끌려 지난해 가을, 태평양을 건너와 손자를 안았다.
2년 동안에 새 부모, 아내와 아이까지 얻은 강수일은 "모든 게 꿈만 같고, 감사할 뿐"이라고 했다. 무릎 수술 후 재활을 하고 있는 강수일은 안산 지역 간호사와 간호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축구팀 '골 때리는 녀스들' 감독을 맡고 있다. 또 남성복 브랜드 '슬링스톤'의 모델로도 활약하고 있다. 설 연휴 직전 서울 한남동에 있는 슬링스톤 쇼룸에서 강수일을 만났다.

K2 안산 선수 겸 '골 때리는 녀스들' 감독
-강수일 주니어를 보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6월 20일에 태어났고요. 미국의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은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다니엘처럼 지혜롭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라는 뜻을 담았습니다. 처음엔 엄마를 많이 닮았다는데 요즘은 저랑 판박이라는 말을 많이 들립니다. 신기하고, 귀엽고, 한편으로 여გ도 무거워지네요."

-미국의 할아버지가 짝짝 방문하셨다면서요.
"지난해 10월 교회에서 헌아식(갓난아이를 처음 교회에 데려와 기도 받는 것)을 한다고 해서 목사님 집무실로 갔는데 아버지가 거기 앉아 계신 겁니다. '서프라이즈!' 하려고 한국 온 사실을 숨기셨던 거죠. 너무 놀라고 반가웠는데, 아버지가 다니엘을 받으시고는 온 얼굴에 침이 다 묻을 만큼 뽀뽀 세례를 퍼붓는 겁니다. 아기는 할아버지 수염 때문에 다가올 텐데 말도 못하고(웃음). 아버지는 예배시간 내내 다니엘을 안고 웃다가 울다가 하셨어요."
-이번에도 한국 부모님과 함께하셨나요.
"그럼요. 같이 제주도 여행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죠. 미국 어머니는 몸이 불편해서 못 오셨지만 영상통화로 손주와 인사하셨어요. 어머니는 '다니엘이 미국에 오기만 해 봐라. 24시간 꼭 안고 절대 안 놔줄 거야' 하셨어요. 하하."

-다니엘 엄마 자랑 좀 해 주세요.
"이름은 김보련이구요. 제가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축구대회를 매년 여는데 거기 봉사자로 와서 만났죠. 제가 2021년에 힘겹게 국내 복귀를 했는데 코뼈가 부러져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사골을 고아서 지하철로 안산까지 와서 전해주는 모습을 보고 '놓치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정식 결혼식은 올 시즌 끝나고 올릴 겁니다."
강수일은 2021년 6월, 꿈에 그리던 미국인 친아버지를 만났다. 유전자 검사로 생부를 찾은 지인의 권유로 2020년 말 미국의 한 유전자 검사 기관에 DNA 샘플을 보냈다. 그리고 2021년 봄 자신과 유전자가 일치하는 사람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미국 앨라배마주 버밍엄에서 신학대학 교수 겸 목사로 일하고 있는 갈렌 존스 씨였다. 주한미군으로 복무한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 결혼했으나 30년 넘게 아이가 없었다.

35년만의 부자 상봉은 말 그대로 기적이고 선물이었다. 유전자 검사 기관이 미국에만 70개가 넘는 데 두 사람이 같은 곳에서 검사를 받은 것이다. 갈



렌 존스는 "유전자 검사를 하면 헤어진 친척을 만날 수 있다"는 부친의 권유로 검사를 받았고, 실제로 몇몇 친지를 만났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에는 강수일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그는 "당신과 같은 DNA를 가진 사람이 당신을 찾고 있다"는 연락



1 서울 용산구 한남동 패션 디자이너 박종철 쇼룸에서 강수일 축구선수를 중앙SUNDAY가 인터뷰 했다. 2 35년만에 상봉한 미국에 살던 친부, 강수일과 그의 아들. 3 제주 유니타이트 선수 시절 훈련중인 강수일. 최영재 기자, (사진 공동취재단 KPFA)

을 받고는 "나는 아들이 없다. 흑시 사기 치는 것이냐"는 답을 보냈다.
1986년 한국 복무를 마치고 귀국한 그는 교제하던 강수일의 어머니에게 초청장과 비행기 티켓을 보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응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다시 한국에 와서 잠시 머물렀는데, 그때 강수일이 생겼다. 아버지는 이 사실을 모른 채 미국으로 돌아간 것이다.
강수일은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냈다.

디자이너 "내면의 강인함 잘 표현 수일씨, 해외에 선보이고 싶어"



패션 디자이너 박종철(왼쪽)과 축구선수 강수일이 함께 쇼룸에 섰다. /최영재 기자

정영재 스포츠전문기자
'패션모델 강수일'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걸 키워나가는 사람은 박종철 디자이너다. 그는 비·빅뱅·장근석 등 당대 최고 스타에게 자신의 브랜드 '슬링스톤'을 입혔고, 송례문·서대문형무소 등 역사적인 공간을 패션쇼 무대로 활용하는 스타일리스트다.
제즈 피아노를 전공한 박 디자이너는 "재즈를 배우고 연주하면서 흑인들의 감성과 리듬감에 탄복한 적이 많았다. 패션 쪽 일을 하면서도 흑인 느낌의 모델이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수일씨를 만났다"고 말했다.

박 디자이너는 "과거의 어두웠던 히스토리와 수일씨가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잘 알고 있다. 모델로서 외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내면의 강인함이 무대에서 잘 표현되는 것 같다. 수일씨는 그날의 테마에 맞게 의상이나 헤어스타일을 세심하게 준비해 온다. 비싼 옷이 아니라도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코디할 수 있는 감각을 갖고 있다"고 칭찬했다.
박 디자이너는 "수일씨가 워킹을 잘 하지만 전문적으로 배운 게 아니어서 좀 더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터치하고 있다. 해외도 같이 나가서 세계적인 무대에서 선보이고 싶은 욕심도 있다"고 귀띔했다.

DNA 검사를 한 번 더해보자던 존스 목사는 비로소 "내 아들임을 인정한다. DNA 검사는 필요 없다"는 답을 보냈다.
2021년 6월 존스 부부가 한국에 건너왔다. 자가격리를 끝낸 직후 숙소 호텔에서 첫 만남. 아버지는 달려와 아들을 꼭 껴안아 주었고, 아내 캐시 존스는 한 시간 넘게 평평 울었다. 강수일의 한국 부모와 미국 부모는 함께 아들의 경기를 보고 식사도 하며 꿈같은 시간을 보냈다. 강수일은 "제가 아버지가 두 분, 어머니가 두 분 생겼잖아요. 지금도 실감이 나지 않아요. 아버지를 원망하고 미워한 적도 있었지만 너무 보고 싶었어요"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강수일 다큐 인기 역주행, 조회수 85만
강수일의 스토리는 유튜브 채널 '중앙유씨엔(UCN SPORTS)'이 15분짜리 다큐로 만들어 2021년 크리스마스이브에 공개했다. 당시 2만여명이 봤던 이 영상은 1년 뒤인 지난 연말 갑자기 역주행을 시작해 올해 1월 현재 조회수가 85만까지 올라갔다.
강수일은 경기도 동두천에서 태어났다. "꿈동이"라는 차별과 멸시 속에 '동두천 강패'로 커가던 강수일은 우연한 기회에 축구선수가 되고, 각고의 노력 끝에 프로축구 인천 유니타이트에 연습생으로 입단한다. 타고난 신체조건과 폭발적인 스피드를 앞세운 그는 K리그 정상급 공격수로 발돋움한다.

2015년 6월 국가대표로 뽑힌 강수일은 A매치 데뷔 전날 금지약물 적발 사실을 통보받고 대표팀을 떠났다. 쿠키에 나게 하려고 바른 발모제에 금지약물 성분이 있었던 것이다. 강수일은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2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고 소속팀에서도 쫓겨났다. 홑김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정신 못 차린 사고뭉치'라는 비난도 받았다.

일본·태국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던 강수일은 2021년 K2 안산 그리너스에 입단했다. 8월 30일 홈 경기에서 골을 넣은 뒤 관중석을 향해 90도 인사하는 '사죄 세리머니'를 했다.
그는 소속팀을 찾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에도 자신이 만든 '아미피에'라는 자선단체를 통해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이벤트와 기부 활동을 펼쳐왔다.

강수일은 올해가 선수로서 사실상 마지막 시즌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안산 구단에서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구선수로서 어두운 곳에 추락한 적도 있었지만 끈기를 갖고 정직하게 살아서 다시 일어섰다는 이미지로 축구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어요"라고 소망을 밝혔다.
모델로서 차별화 포인트를 묻자 그는 "운동선수 특유의 빠르고 단단한 이미지, 그리고 다른 피에서 나오는 느낌 같은 게 아닐까 싶어요. 외모와 피부색이 다른 게 어릴 적엔 족쇄가 됐지만 그걸 극복하면 날개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라며 웃었다.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보청기

Since 1982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062) 227-994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